



'케데헌'의 갓 써볼까... 제주 무형유산 대전

이달 5-6일 목 관아 일원 28개 종목 한자리서 체험 관객 참여형 마당극 형식 전승자 공연·시연·체험



탕건장 보유자 시연.

제주도 제공

제주 고유의 정체성이 담긴 무형유산 28개 종목이 한자리에 모인다. 이달 5-6일 이틀간 제주시 제주목 관아 일원에서 열리는 '2025 제주 무형유산 대전'에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마련한 이번 행사는 국가 지정 6개, 도 지정 22개 종목을 전승자들이 직접 참여해 공연·시연·체험을 통해 제주 무형유산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축제다.

올해는 기존 공연 형식을 벗어나 관객 참여형 마당극으로 진행한다. 행사는 폭염을 고려해 5일은 오후

3~7시, 6일은 오후 4~7시 운영된다. 첫날인 5일에는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 '칠머리당 영등굿'과 국가무형유산 '제주큰굿'의 의식재현이 펼쳐진다. 농업활동에서 불렸던 제주농요와 제주를 대표하는 민요 공연도 이어진다. 둘째 날인 6일에는 해녀노래, 방앗돌 굴리는 노

래 등 제주의 노동요와 영감놀이, 행사소리, 제주시장민요 등 다양한 전통문화 공연이 펼쳐진다.

또 최근 인기를 끈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로 '갓'이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유산 '갓질' 전승자들의 시연과 관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갓 쓰기 체험'을 준비한다. 이밖에 도 탕건·망건 제작 시연, 제주 전통주 고소리술·오메기술 시음, 고분양태·정동별립 체험 등 제주 전통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어린이들을 위해 전통놀이 체험프로그래도 운영된다.

이밖에 4일에는 사전 행사로 송당리 마불림제와 성음 오메기술 등 무형유산을 찾아가는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고종석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장은 "마당극 형식으로 관객과 호흡하며 무형유산의 가치를 공유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제주 고유의 정체성이 담긴 무형유산을 한자리에 보고 듣고 체험하며 제주 전통문화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고재만의 제주어기림향편 <465>

구성:(사)제주어보전회 <재만그림글자 응용>



오 멩 이 꼴맨: "누님, 무낭달이 어느 바당 소곱에 하영 시스파?"
쭌 네 꼴맨: "오-, 그거 서귀포 문섬 앞 바당 소곱에 고운 무낭달이 하영 시스파?"
하르바지 꼴맨: "아으달아, 서귀포 문섬 앞바당에 이신 곱닥흔 무낭 이악은 싯당하곡. 야으달아, 마리에 오라. '미레 소녀 예나'에 대한 이악을 하영보커"

"그런 건 민달팽이 잡으러 돌아다니기 전에 아빠하고 혼반만 상의해주렴. 혹시 아빠가 사령관이라서 예나 느가 더 관심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정의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다는 걸 몰라주고 나가 아빠의 지위를 밟고 까부는 아으로 본다는 것이 기가 맥헛주.

"절대 아니야!"
두 번째로 교장 선생님께 불려간 것은 아으달을 괴롭히는 두엔의 애완거복을 훔쳐서 일주일간 숨겼기 때문이었다. 두엔의 거복 일름은 터미주. 터미를 나 방에 숨겨놓아신디 그동안 터미는 나 방에서 지내는 게 좋은지 불편한지 표현을 안하엿주. 움직임이 없어서 난 가끔 터미가 죽어신가 하연 불안하엿주. 터미를 더 오래 숨기려 하엿주만 그랫다간 나가 숨이 넘어갈 것 같안 두엔에게 돌려주고 말앗주.

시 번째로 불려간 것은 이 여학생광 저 여학생광 사귀다가 이유웃이 차버리는 사이먼의 사물함에 페인트 폭탄을 설치하엿기 때문이었다. 사이먼이 나신디 사귀자는 말을 안 하어서 페인트 폭탄을 설치하엿 건 절대 아니엿주. 그 페인트 폭탄은 사이먼의 얼굴에 검은색 얼룩을 남겼고 그 자국이 다 사라지는 데에는 혼 달이 더 걸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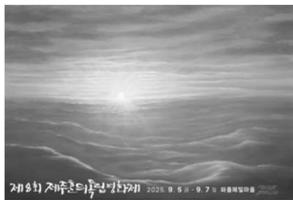
<자료: 청소년 장편소설 '미레 소녀 예나' 박미윤작. 도서출판 한그루 >

오 멩 이 꼴맨: "누님, 예나는 하음 장난꾸러기우다양"
하르바지 꼴맨: "경흔거 닳안게. 두엔의 애완거복을 숨기는 거 보민"
쭌 네 꼴맨: "하르바님. 페인트 폭탄을 설치한 것도 예나 아니파?"

제주어 풀이
*무낭 (무낭, 무의남, 무의당, 무의당, 흑산호): <일름> 산호, 산호초 *잠으레: 잠으러
*하영 시스파?: 많아요? *이신 곱닥흔: 있는 고운
*무낭 이악은 싯당하곡: 산호 예기는 이따가 하고
*받아사 하다고: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생각하는 것은 *아으로: 아이로 *맥헛주: 멧헛다
*숨겼기 때문이었다: 숨겼기 때문이었다 *곶안: 같아서
*시 번째로: 세 번째로 *따문이었다: 때문이었다

메밀밭 상영관에서 여덟번째 혼디독립영화제 제주 청소년들이 준비한 '4·3 문화예술제'

5-7일 와흘메밀마을서 경쟁·비경쟁 37편 상영



제8회 제주 혼디독립영화제가 이달 5-7일 사흘간 제주시 조천읍 와흘메밀마을에서 열린다.

제8회 제주 혼디독립영화제가 이달 5-7일 사흘간 제주시 조천읍 와흘메밀마을에서 열린다.

사단법인 제주독립영화제가 주최하고 제주혼디독립영화제 집행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영화제는 제주의 영화영상 문화 활성화와 지역민의 다양한 영화문화 향유를 위해 마련됐다.

올해 영화제에는 전국 공모를 통해 역대 최다인 1104편이 접수됐으며, 이 중 세 차례 걸친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 경쟁·비경쟁 부문 37편의 작품이 스크린에 걸린다. 혼디경쟁 부문 25편을 비롯해 비경쟁 부문인 제주신작 4편, 너븐송이 5편, AI 단편 3편이다.

개막식은 5일 오후 7시 와흘메밀마을 야외무대에서 열린다. 특별상영관을 통해 유영은 감독의 '물질', 박승희 감독의 '웰컴 투 마이

홀', 권아영 감독의 '밤밤', 권민오 감독의 '이별의 해부학' 등 제주를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극영화인 제주신작 선정작 4편이 상영된다. 혼디경쟁 부문에는 이우리 감독의 '산행', 이가은 감독 'K에게', 이문주 감독의 '뉴-월드관광', 정기연 감독의 '자율주행이 너무해', 백소혜 감독의 '모과' 등 총 25편의 단편이 '혼디피플상'을 두고 경쟁한다. 수상작은 관객과 관객심사단, 심사위원의 투표를 통해 결정되며, 이달 7일 폐막식에서 발표된다.

전체 상영작 등 자세한 내용은 혼디영화제 누리집(www.hondie.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박소정기자

7일 제주학생문화원

제주 청소년들이 준비한 '4·3 문화예술제'가 열린다.

사단법인 제주민예총은 이달 7일 오후 1시부터 제주학생문화원에서 '우리의 4·3은 푸르다'라는 슬로건으로 '2025 청소년 4·3 문화예술제'를 연다. 청소년들이 그들만의 방식으로 제주4·3의 의미를 표현하고 이를 공유하는 자리다.

'평화마당'은 밴드 공연, 중창, 합창, 랩, 연극, 마임, 영상 등으로

꿈속 소녀 따라 300년 전으로 전통예술공연 '탐라순력도'

꿈속 소녀를 따라 300년 전 탐라를 여행한다. 이달 6일 오후 3시 서귀포시 김정문화회관에서 공연되는 '탐라순력도 : 다채로운 꿈'이다. 전통예술단체 마로가 선보이는 '탐라순력도'는 조선시대 제주 각

4·3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청소년들의 문화예술공연이다.

'인권 마당'에서는 청소년들이 직접 구성한 4·3 교육·체험 놀이, 굿즈 만들기 등 4·3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4·3을 스토리텔링한 체험 부스를 운영한다. '공동체 마당'에서는 예술가와 함께하는 퍼포먼스형 4·3 체험 부스가 운영된다. 강봉수·고영숙 시인, 부복정 동화작가, 신선경 음악가, 박연술 춤꾼이 함께한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민예총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박소정기자

고을의 풍광과 문화를 기록한 채색화 탐라순력도를 바탕으로 전통가무악과 미디어아트로 풀이된 융복합 전통예술 공연이다. 한라장족, 성산관일, 천연사후 등 제주의 자연과 실화를 여섯 개 장면으로 구성해 전통문화의 예술적 가치를 재조명한다.

공연은 모든 연령 관람 가능하며, 예매는 서귀포e티켓에서 하면 된다. 관람료는 1만원이다. 박소정기자

삼육두유
우리가족 건강음료,
삼육두유

설탕을 넣지 않고 고소하고 부드러운 콩 그대로의 맛을 살린 절대 모방할수 없는 맛

제주도총판 대표 윤 봉실
064)757-1416

강정종묘
종남농장

신품종 우량묘 포트묘

제18-서귀포-2019-20-03

- 국립종자원에 생산, 판매신고가 된 믿을 수 있는 공식업체
- 국내육성 신품종 통상실시 계약완료
- 다양한 년수 포트묘 보유중

등록품종	신품종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카라향, 레드향, 하갈, 유라조생, 레몬.	달코미, 우리향, 미래향, 싯향, 맛나봉, 레드스타, 하례조생, 원터프린스.

제주특별자치도 주문전화 010.3696.1614
서귀포시 이터도로 530 (사무실)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 ▶ 키폰·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 통신전주건식(가입자부담공사)
- ▶ 네트워크 설비공사
- ▶ 전관방송 설비공사
-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라전설(주)
대표: 원문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고객을 위한 통합 SOLUTION 제공

VOICE & 영상장비 (교환대 & CCTV) NETWORK 설비 (서버 & Network)

ONE-STOP SYSTEM
비상전원설비(UPS & AVR) 구내통신공사

◇ 열린 기술 습득 ◇ 기술인력 개발
◇ 고객 중심 사고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rmation technology

본 점 : 제주시 이터1동 1248-43번지
☎(064)722-0992, FAX (064)725-0993